

재도약으로
위한
스립의
미학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고작 83달러였다. 그리고 33년만인 95년엔 1만달러를 돌파했다. 65년 이후 30여 년 동안 연평균 8.7%씩 성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은 1백61개국 가운데 26위에 올랐고, 교역 규모도 세계 13위에 랭크돼 있다.

경이적인 것은 선진국들이 1백년만에 이룬 경제성장을 우리나라는 40년만에 이룩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지난 9월말 현재 3천3백15만여명이다. 전체 인구의 70%가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가입자는 1천40만 가구(2002년)로 단연 세계 1위다. 가히 정보통신 초강국이라 말할 수 있다.

‘빨리 빨리’ 정신은 세계 최고

모두 ‘빨리 빨리’ 정신으로 무장해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한 국민성 덕이 크다. 땅덩어리는 좁은데다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빨리 빨리 문화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고 얻게 했다. 문제는 조절 능력의 상실에 있다. 브레이크 없이 너무 빨라 부작용이 심하다는 얘기다.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60년에 6명이던 출산율이 올해 1.13명으로 곤두박질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에서 1.4 수준이 되는 데 일본은 30년, 네덜란드는 29년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6년밖에 안 걸렸다.

어디 그뿐이라. 도로마다 비상등을 켜고 질주하거나 고속도로 갓길 운행을 하는 차들이 넘쳐난다. 요즘엔 초고속 택배 오토바이들이 ‘무법자’ 대열에 가세했다. 그래서 교통사고율 또한 세계 1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단 몇초를 참지 못해 닫힘 버튼을 마구 누른다.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 열명 가운데 여덟은 화장

실에서도 전화를 받는다. 식사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서 비빔밥이나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 먹을 수 있는 설렁탕·곰탕 등 탕 종류가 인기다. 젊은이들의 식단은 즉석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점점 기울어 버렸다. 이처럼 빨리 먹다보니 위암 사망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속도도 세계 최고다. 폭탄주를 마셔 빨리 취해야 직성이 풀린다. 약속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휴대전화로 상대의 위치를 수없이 확인한다. 오죽하면 약속 시간을 제대로 안지키는 국민성 때문에 휴대전화 보급이 단시간에 이뤄졌다는 학자들의 분석까지 나오지 않는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하루에도 e-메일함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한다. 인터넷 용어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축약어나 이모티콘 투성이다. 속도가 조금만 늦어지면 컴퓨터를 갈아치워 자원을 낭비한다. 빠른 음악과 빠른 춤을 좋아하고, 장편 원본보다는 요약판 책을 선호한다.

그 '초단기 속성 재배'로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흔적도 없이 땅으로 꺼졌다. 신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빨리 빨리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급행료라는 뒷돈이 생겼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공교육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 교육보

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초등학교 자녀를 수학·영어 등 대입을 공부하는 학원에 넣고 닦달한다. 학원 강의를 듣기 위한 선행학습 과외를 따로 시키는 학부모도 있다.

10억분의 1초를 다투는 시대에 빠름은 미덕이요 경쟁력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유독 우물에서 승냥이를 달라고 하고, 바늘 허리에 실을 때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고, 터지면 피해가 크다. 뒤쳐지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인정머리란 눈곱만큼도 없다.

빨리 빨리 문화는 한때 우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한국병을 깊게 만든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좀더 느리게 살았다면 공교육이 붕괴되지 않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등과 같은 대형 참사들도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제는 반석 위에 섰을 것이다.

물질과 효율, 경쟁과 속도로 규정되는 현대, 특히 우리 나라에서 느림의 미학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빨리 빨리 문화는 사람들을 피상적인 관계로 내몰고, 인내심을 갖지 못하게 하며, 빨리 흥분시킨다.

빠름의 문화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느림의 미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우리 민족 정서의 본바탕은 담백한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백자의 미감이다. 그 본바탕을 찾아야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이 더 추락하고 황폐해지기 전에 느림의 미학을 배워야 한다. PPFK